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 양육특성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윤준호(을지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조해연(을지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부교수)

1. 서론

최근 한국의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1년 한국 합계 출산율은 0.808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유일한 0명대를 기록하였으며,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0이 되었다(통계청, 2024). 한국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이 시행 중이다. 정부 차원에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임신·출산 지원 강화, 아동수당 지급, 육아휴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2020). 그러나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인간의 행동은 정책이나 주변 지원 여부 등의 외부적인 요인뿐 아니라 개인의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출산 역시 국가 정책이나 환경 등의 거시적인 측면뿐 아니라 가치관, 신념, 스트레스 등 미시적 측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가구유형의 변화 등 최근 양육환경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에 대한 고찰이 요구되는 바이다(김나영, 권미경, 오동석, 정유나,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조사 결과를 이용해 후속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심리·정서적 특성, 양육특성과 후속출산계획 등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업 여부 등의 개인 변인을 통제하고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과 양육특성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기존 연구들에서 도출한 결론과 함의들을 재점검함으로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 양육특성은 일반적인 성향은 어떠한가?

둘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후속출산계획에 따른 심리·정서적 특성, 양육특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 양육특성이 후속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에서 수집하는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Korean ECEC Panel Study) 1차년도(2021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영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2,580명이며, 평균 연령은 어머니는 33.52세였다.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심리적 특성으로 자아존중감과 우울, 성격특성으로 그릿, 부부관계로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를 살펴보았고, 양육 특성으로 양육행동(사회적), 양육스트레스, 후속출산계획을 살펴보았다. 자료분석은 SPSS 23.0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분석, 집단 간 평균비교분석(t검증), Pearson's 적률상관계수 산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과 양육특성, 후속출산계획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 양육특성, 후속출산계획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평균 3.02, 우울은 4점 만점에 평균 .78, 그릿은 5점 만점에 평균 3.20, 결혼만족도는 7점 만점에 평균 5.64, 부부갈등은 5점 만점에 평균 3.92, 양육행동은 5점 만점에 평균 3.92, 양육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2.57로 나타났다.

둘째, 후속출산계획에 따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과 양육특성을 비교한 결과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어머니들의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우울과 부부갈등은 낮았고 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속출산계획이 있는 어머니들은 긍정적 양육행동을 하고 있고, 양육스트레스가 낮았으며, 출산계획이 없는 어머니들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 양육특성인 자아존중감, 우울, 그릿,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속

출산계획은 어머니의 그릇을 제외한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과 우울, 부부관계인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 양육특성인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후속출산계획과 상관이 확인되지 않은 그릇을 제외하고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 양육특성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취업/학업상태를 통제한 후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과 양육특성에 따른 후속출산계획을 검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는, 후속출산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고, 긍정적 양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영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특성인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가 후속출산계획과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긍정적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받는다. 부모 역할만 강조하는 부모교육보다는,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긍정적 심리·정서 특성을 강화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힘을 키우고, 긍정적인 양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 교육 및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부모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양육 코칭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육아지원정책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서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지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가 안정적이며 긍정적인 심리·정서 상태이거나 만족스러운 부부관계, 낮은 양육 스트레스인 경우 후속출산을 계획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영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긍정적인 심리·정서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후속출산계획과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여러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후속 연구를 수행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른 변인의 영향이나 출산 지원의 매개 효과 등이 어떠한지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부모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떠한 경로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